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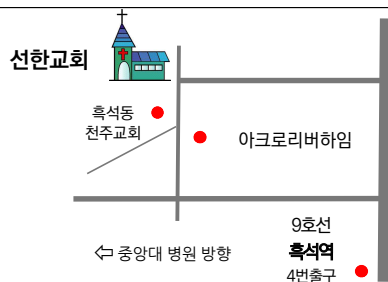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
| 주 일 예 배 | 1부 주일 오전 9:30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          |       |         |
|         | 3부(청년)주일오후 1:00 | 유 아 부           | 오전 11:00 | 남전도회  | 오후 2:00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 유 초 등 부         | 오전 10:00 | 바 울 회 |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청 소 년 부         | 오전 11:00 | 마리아회  | 오후 2:00 |
|         | 수요일 저녁 7:30     | 청 년 부           | 오후 1:00  | 드보라회  |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8:30     | 영 어 예 배         | 오후 3:30  | 에스더회  | 오후 2:00 |
| 금 요 기도회 | 금요일 저녁 8:30     |                 |          |       |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         | *월삭새벽예배 6:00    |                 |          |       |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          |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임목사 임 춘 배      | 국 내 선교사   |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
|         | 교육목사 권 인 혁      | 협 력 교 회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전임전도사 김 진 만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 교육전도사 윤 영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은 퇴 장 로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 고 상 돈, 김 대 희    | 해외협력선교사   | 이금춘, 김인실             |
|         | 박 희 태, 유 신 웅    |           | 조나단, 강야엘             |
|         |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 관 리 장 로   | 손 석 규                |
| 장       | 조 윤 익, 박 영 근    | 500/50 교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조 계 승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8:2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오 전<br>예 배 | 오 전 11:00                      온라인 예배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기          | 원                                      인도자                              |
| 찬 양 과 경 배  | 23장                                                                     |
| 교 독 문      | 교독문 8번 (시편 14편)                                                         |
| 찬 양 과 경 배  | 350장 (통일찬송가 393장)                                                       |
| 기          | 도                                      윤호중 장로                           |
| 말 씬 봉 독    | 고린도후서 8장 16~24절                                                         |
| 설          | 교 <b>큰일을 맡길 수 있는 동역자</b><br>(임춘배 목사)                                    |
| 환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파 송 의 노 래  | 주의 나라 세우소서                                                              |
| 축          | 도                                      임춘배 목사                           |
| 성 도 의 교 제  | 다함께                                                                     |

|            |                                                           |
|------------|-----------------------------------------------------------|
| 수 요<br>예 배 |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 (잠31:10-31)

|                     |                                                                                                                                                                                                                                                                                                                         |
|---------------------|-------------------------------------------------------------------------------------------------------------------------------------------------------------------------------------------------------------------------------------------------------------------------------------------------------------------------|
| 교회소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 1. 예 배 안 내          | <p>[다음주 대면예배 여부는 주중에 공지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br/>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li> <li>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li> <li>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li> <li>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li> </ol> <p>-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p> |
| 2. 교 사 대 학 개 강      | <p>교사 대학에 모든 교사 및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p> <p>일정 : 2022년 3월 ~ 6월 (약 12주, 개강 3월 5일)</p> <p>시간 : 매주 토요일</p> <p>장소 : 선한교회 지하 교육관</p> <p>개설 과목 : 기독교교리이해, 구약성경개론</p> <p>문의 : 구영서 집사(교육위원장)</p> <p>*신청서는 본당 뒤편 및 카카오톡 공지방을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p> <p>*신청 의사 및 신청서 사진을 사무실 및 김진만 전도사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p>                           |
| 3. 선한교회 장학생 선 발 안 내 | <p>신청기간 : 2월 14일(월) ~ 2월 27일(일) 자정까지 2주간</p> <p>신청방법 : 이메일 (<a href="mailto:jgw1025@naver.com">jgw1025@naver.com</a>)</p> <p>서면제출 - 정구원 장학/경조부장</p> <p>* 장학금 안내 서류 및 신청서는 본당 뒤편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p>* 문의 - 정구원 장학/경조부장 (010-5800-2692)</p>                                                                         |
| 4. 개인경건훈련안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예배드리기</li> <li>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li> <li>3. 성경읽기(3차)<br/>(범위: 민수기 28장 ~ 신명기 7장)</li> <li>4. 경건서적읽기</li> <li>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li> </ol>                                                                                                                                        |

|              |                                                                     |
|--------------|---------------------------------------------------------------------|
| 한주간의<br>기도제목 | <p>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p> <p>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한주가 되기를</p> |
|--------------|---------------------------------------------------------------------|

찬송 :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통379)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 바울과 실라는 선교여행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고 사도행전 1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과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쫓기듯이 베뢰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 안식일이라고 하면 21일 밖에 되지 않는 날입니다. 어찌보면 현재의 단기선교 일정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짧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이 먼곳에서도 소식을 듣기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1장 6절)”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7절에 말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고 심지어 인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끔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2장 13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단지 설교자의 경험담이나 또다른 지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듣는 것을 ‘hear’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설교가 소음이나 무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들리지만, 소음을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소리를 듣는 것을 ‘listen’ 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의깊게 잘 듣지만, 설교의 흐름을 찾거나 신학적인 오류를 발견하는데 집중한다면 들은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듣고 내것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것을 ‘accept’ 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엄마 말 좀 들어’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잘 듣기만 하고 딴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내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소음으로도, 지식적인 말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비결을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결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     |                                                                                                                             |  |
|-----|-----------------------------------------------------------------------------------------------------------------------------|--|
| 제 목 | 큰일을 맡길수 있는 동역자 (고린도후서 8:16-24)                                                                                              |  |
| 서 론 | 주의 일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
| 본 론 | 1. 바울이 보낸 동역자들                                                                                                              |  |
|     | (1)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에게 거액의 연보를 옮기는 일을 맡김(16,22절)                                                                                |  |
|     | (2) 이들에게 큰 임무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 ①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17절) ②복음으로 칭찬받는 자(18절) ③주의 영광과 교회의 뜻을 나타내는 자(19절) ④선한 일이 비방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20,21절) |  |
|     | 2. 교훈                                                                                                                       |  |
|     | (1) 바울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었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  |
|     | (2) 나는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  |
|     | (3)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과 교회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가?                                                                                    |  |
| 결 론 | 교회의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예 배 기 도 | 윤호중 장로   | 조계승 장로     |

| 매일 Q.T. |                                                                                                                                                                                                                                                              | 성도의 소망,<br>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 | 날짜 : 2월 28일 |
|---------|--------------------------------------------------------------------------------------------------------------------------------------------------------------------------------------------------------------------------------------------------------------|---------------------------|-------------|
| 찬양      |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             |
| 본문      | 누가복음 17:20-37                                                                                                                                                                                                                                                |                           |             |
| 말씀요약    |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번개처럼 임할 것인데,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날에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 것입니다.                                                                                            |                           |             |
| 묵상질문 1  | 하나님 나라오 주님의 재림 17:20-25<br>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을 영접한 후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                           |             |
| 묵상질문 2  |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준비 17:26-37<br>예수님 재림에 인용된 구약의 두 사건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위해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둘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누가복음 17장 34-35절<br>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데려가심을 얻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남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남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으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즐기던 친구가 남으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주님, 제가 이 땅의 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무거운 죄 짐을 내려놓고 영혼을 가볍게 준비하게 하소서.                                                                                                      |                           |             |

| 개인성경공부     |                                                                                                                                                                                                                                                                                                                                                                                                                                                                                                                                                                                                                                                                                                                        |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
|------------|------------------------------------------------------------------------------------------------------------------------------------------------------------------------------------------------------------------------------------------------------------------------------------------------------------------------------------------------------------------------------------------------------------------------------------------------------------------------------------------------------------------------------------------------------------------------------------------------------------------------------------------------------------------------------------------------------------------------|----------------|
| 찬양과 기도     |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새 369, F) 마음이 상한 자를                                                                                                                                                                                                                                                                                                                                                                                                                                                                                                                                                                                                                                                                                      |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 이야기 속으로    |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죽어 가는 생명을 살려 주시고 다스리시는 이 기막힌 사건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와 하나님 단둘이 하는 겁니다. 신앙심 깊은 부모가 있고, 존경스러운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친구가 있어도 자아가 ‘나는 끝까지 내가 주인 할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냥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른 뼈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 여호와다. 네가 나를 만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가 생명이라고 믿던 것이 사실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데서 우리와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 이민아, 「하늘의 신부」(두란노)<br>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고집부리며 주장해 온 나의 의는 무엇인가요? |                |
| 말씀 나누기     | 누가복음 18:9-17                                                                                                                                                                                                                                                                                                                                                                                                                                                                                                                                                                                                                                                                                                           |                |
| 묵상포인트      |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줍니다. 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반면에 세리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자들은 친구로 받으시고 높이 주십니다. 한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세리의 겸손한 기도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 관찰과 묵상     |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11~13절)                                                                                                                                                                                                                                                                                                                                                                                                                                                                                                                                                                                                                                                                    |                |
| 적용하기       | 기도할 때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내게 없나요? 기도하는 세리의 태도에서 내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요?                                                                                                                                                                                                                                                                                                                                                                                                                                                                                                                                                                                                                                                           |                |
| 함께 기도하기    | 날마다 죄에 빠져 해매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매 순간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                |
| 기도         |                                                                                                                                                                                                                                                                                                                                                                                                                                                                                                                                                                                                                                                                                                                        |                |

| 매일 Q.T. |                                                                                                                                                                                                                                                               |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br>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맹인 | 날짜 : 3월 4일 |
|---------|---------------------------------------------------------------------------------------------------------------------------------------------------------------------------------------------------------------------------------------------------------------|-----------------------------------|------------|
| 찬양      |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            |
| 본문      | 누가복음 18:31-43                                                                                                                                                                                                                                                 |                                   |            |
| 말씀요약    |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고쳐 주시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                                   |            |
| 묵상질문 1  | 세 번째 수난 예고 18:31-34<br>예수님이 그분의 고난과 죽임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예리고 맹인 치유 18:35-43<br>사람들의 만류에도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애타는 외침,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누가복음 18장 38-39절<br>구원 얻는 믿음은 겸손을 내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율법적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음적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성령의 빛을 받아 자신의 죄와 무능함과 가난함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공휴일이 필요 없을 만큼 부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보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처럼 캄캄하고 비참한 제 삶을 크신 공화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영적 눈을 환히 밝히셔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br>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 날짜 : 3월 1일 |
|---------|-------------------------------------------------------------------------------------------------------------------------------------------------------------------------------------------------------------------------------------------------------------|------------------------------|------------|
| 찬양      |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            |
| 본문      | 누가복음 18:1-8                                                                                                                                                                                                                                                 |                              |            |
| 말씀요약    |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 달라고 계속 간청하니, 재판장이 마지못해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십니다.                                                                                               |                              |            |
| 묵상질문 1  |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18:1-5<br>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인내와 끈기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택하신 자들과 의로우신 하나님 18:6-8<br>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낙심되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믿음의 기도를 계속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누가복음 18장 8절<br>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끈기 있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사학적 질문이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깊숙이 찌르는 것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헌신보다는 누림을, 거룩함보다는 화려함을, 십자가 고난보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모조품이 수치를 당하고 진품이 영광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기도에 게으르고 쉽게 낙심하며 조금해했던 제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제 바람과 아픔을 들으시고 완벽한 시간에 선하게 응답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하나님 백성의 품성,<br>겸손함과 순수함 | 날짜 : 3월 2일 |
|---------|----------------------------------------------------------------------------------------------------------------------------------------------------------------------------------------------------------------------------------------------------|-------------------------|------------|
| 찬양      |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            |
| 본문      | 누가복음 18:9-17                                                                                                                                                                                                                                       |                         |            |
| 말씀요약    |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한 바리새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둘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                         |            |
| 묵상질문 1  | 세리의 겸손함 18:9-14<br>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나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                         |            |
| 묵상질문 2  | 어린아이의 순수함 18:15-17<br>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결 지으셨나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누가복음 18장 13절<br>“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몇 가지 허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죄 덩어리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존재론적 시인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죄에 대한 혐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고백의 진위에 따라 용서와 심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제 모습은 어떤지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헛된 교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제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을 기뻐하며 의심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재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br>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 | 날짜 : 3월 3일 |
|---------|------------------------------------------------------------------------------------------------------------------------------------------------------------------------------------------------------------------------------------------------------------|--------------------------------|------------|
| 찬양      |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            |
| 본문      | 누가복음 18:18-30                                                                                                                                                                                                                                              |                                |            |
| 말씀요약    | 한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 나눠 주고 그분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가 근심하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과 가족을 버리면 내세에 영생을 얻습니다.                                                                                           |                                |            |
| 묵상질문 1  | 가진 자의 근심 18:18-23<br>부자 관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버린 자의 복 18:24-30<br>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현세에 보상과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천국 영생의 관점에서 내가 버려야 할 세상 가치는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누가복음 18장 25절<br>값비싼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를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구원을 선심 쓰듯 흘부리려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도 구원만큼은 돈으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자가 망하는 순간은 투자에 실패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바늘귀보다 작은 하나님 나라의 문은 하나님 은혜로만 열립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말씀을 앎과 행함이 제 삶 속에 하나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즐거이 따르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                                |            |